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운영방안 마련 나섰다

최근 용역 발주···전남권 의대·부속병원 설립, 인력확보 방안 제시 올 하반기 공공의료 강화·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 염두에 둔 포석

전남도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 립·운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 남지역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의 전남권 의대 설립 방침 확정 시 신속한 추 진을 위해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과 공공 의료 강화 요구에 따라 의사 정원 확대 및 의대 신 설 논의가 올 하반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염 두에 둔 사전 포석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목포권(목포대), 순 천권(순천대)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타 당성 용역은 추진된 바 있으나, 도내 전역을 대상

으로 한 의대 신설 관련 용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는 용역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까지 크 게 4가지 세부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내 공공 의료 서비스 현황 분석 및 확충 방안(공공의료 강 화방안), 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 당위성(유치 전 략), 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의대 및 부 속병원 특화방안이다.

우선 도내 필수의료여건과 수요 차이로 인한 문 제점을 부각해 의대 및 공공병원 설립,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시할 계획 이다. 필수의료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 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감염 및 환자 안전 등 국민 기본권(건강권) 실현을 위한 기본적 의료 서비스를 가리킨다.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이지만, 전남 에선 필수의료서비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 당위성을 도출하고, 타 시도 의대 및 의료 인력 현황 등을 반영한 유치 전 략을 수립한다. 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 방 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신입생 정원 100명 확보할 경우를 가정해 동·서 부권 모두에 각각 대학병원 및 강의캠퍼스 설치 방 안을 우선 마련하고, 예비적으로 신입생 정원 100 명 확보 불발 시 대응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전남 실정에 맞는 의대 운영 및 의료 인력 양성,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섬이 많은 전남 특성을 고려한 의대 특화 방안 수립과 농어촌 및 산업재해 분야 전문의사 등 전남 실정에 맞는 의료 인재 육성 방안도 갖춘다는 것이

지역 의대 신입생 모집→교육→전문의 양성→대

학병원 및 지역의료기관 배치→지역 정착 및 의료 활동 지속에 이르는 전주기 의료인력 양성 방안도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올 하반기에는 의사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7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 면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 는 전남의 의대 유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당정이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밀려 의사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등을 코로 나 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고 원점 재검 토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시민대상 후보 공모 5개 부문…인터넷 추천 신설

광주시는 2일 제35회 광주시민대상 후보자 공모 를 냈다. 수상 부문은 사회봉사, 학술,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등 5개로 부문별로 1명(곳)을 선정한다. 자격은 공고일 현재 기준 3년 이상 광주 에 거주하고 광주시의 명예 선양과 지역발전에 뚜 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다. 후보자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7일간이며 방 문, 우편, 인터넷 접수로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인터넷 접수는 광주시 홈페이지(바 로소통광주)에서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예비 후보자를 선정하고 공개 심사를 거쳐 정식 후보자 를 선정한다. 수상자 발표는 5월 14일이며 상패를 수여하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수상자를 발굴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강 화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추천, 심사기준표 도 입, 공개검증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고 말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북구종합체육관 착공식 2일 광주 북구 연제동 종합체육관 사업부지에서 열린 '북구종합체육관 착공식'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이형석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착공을 알리는 발파버튼을 누르고 있다. 북구종합체육관은 총 160억 원이 투입돼 연제동 일원에 연면적

4995㎡(지상 4층)로 신축되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전남도, 지식정보문화산업 육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5개 기업과 30억 투자 협약 체결

전남도는 도내에서 창업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남으로 이전 또는 지점·지사를 설립한 지식정보 문화산업 5개 기업과 30억3000만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지역 청년 인재 59명 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사이테크놀로지, (주)디 자인숨, 솔솔협동조합, (주)니나노플래닝, 4개 기 업은 나주에 27억8000만원을 투자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애니메이션 기획・제작, 영화・비디오물 제작 등에 나선다. 49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전 망이다.

(재)한반도경제연구원은 순천에 2억5000만원 을 투자해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 활동으로 10명 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식정보문화산업 육성에 집중 해왔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지식・정보・ 문화를 활용해 정보통신기술(ICT), 증강현실 (AR)·가상현실(VR), 게임, 영상, 애니메이션,

웹툰 등 문화·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확보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2018년부터 시군과 함께 전남으로 이전·창업하거나 지점·지사를 설립한 3인 이상 의 지식정보문화 기업과, 전남 기업 중 3인 이상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억에서 최대 5억원까지 기업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

그 결과 이번 5개 기업을 포함해 83개 기업과 691억6000만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935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병용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지식정보문화 산업은 투자액은 적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청년 일자리가 많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 며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전남을 지식정보문화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오는 4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투자유치 설명회인 '지식정보문화산업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남지 역 콘텐츠 산업 현황과 투자 여건, 기업유치 보 조금 지원제도를 소개해 지식정보문화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자 희망 기업을 발굴할 예 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우후죽순 포트홀'

광주서 하룻새 100여건 사고 도로관리 부실 시민 불만 폭주

광주에서 비가 내린 후 곳곳에서 포트홀이 발생 해 하루 동안에만 차량 100여 대의 타이어가 파손 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비 탓을 하고 있지 만, 부실한 도로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 주하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관내 도로 에서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 사례가 100여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가 접수된 것은 남문 로, 영광로, 빛고을대로, 무진대로, 상무대로 등 17곳 도로에서 100여 곳 이상의 도로에서 크고 작 은 포트홀이 생겼다.

빛고을대로 등 특정 도로에서는 한꺼번에 10여 대의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는 등 사례도 나온 것으 로 알려졌다. 갑자기 포트홀이 우후죽순 생겨나면 서 이 구간 도로를 지난 차량 100여 대의 타이어가 파손돼 광주시와 경찰에 피해 신고도 함께 접수됐

광주시는 겨울철 제설을 위해 염화칼슘을 뿌려 약해진 도로포장이 기온이 오르고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파손되면서 포트홀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타이어 파손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고 경위를 증빙하면 국가배상법에 따 라 공제회 보험 보상 처리해 줄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가 내리면서 포트홀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8개 복구반과 순찰 반을 투입해 포트홀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첨단의 한 도로 포트홀에서 타이어 옆면이 찢긴 한 시민은 "도로 자체가 누더기가 됐다. 일주일 전 부터 도심 곳곳에 포트홀이 많았다"면서 "최소한 시 홈페이지를 통해 포트홀 사고 피해시 어떻게 증 빙하고 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라도 알려줘 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I 데이터센터 운영 대비 광주시, 시범 서비스 실시

광주시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시범서비 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데이터센터 정 식 서비스를 앞두고 AI 가속기, 데이터 레이크, 소 프트웨어 솔루션 서비스(SaaS) 등 개발 환경을 점검하려는 것이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지난해 12 월 사전 조사를 통해 시범 서비스 대상을 선정했 다. AI 데이터센터는 900여억원을 들여 광주 첨단 3지구에 구축한다. 컴퓨팅 연산 능력 88.5PF(페 타플롭스), 저장용량 107PB(페타바이트)로 세계 적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

고가의 AI 가속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바로 지원하려고 4월부터 8.85PF 가속기 성능과 10.7 PB 저장공간을 NHN이 운영하는 클라우드를 통 해 먼저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창립 행정안전부 **40**th 표창장 수상

🤼 MG새마을금고

최고 70% 아파트 분양자금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 살 론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 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